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들은 어떻게 스페인 거함을 잡았나

메시

"상대를 철저하게 분석한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완승입니다."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격파하는 맹위를 떨쳤다.

뮌헨이 24일(한국시간) 펼쳐진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거함'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여 4-0으로 완파하더니 하루 뒤인 25일에는 도르트문트가 바통을 이어받아 '갤럭시 군단' 레알 마드리드를 4-1로 잠재우며 동반 결승진출의 희망을 밝혔다.

뮌헨에서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득점왕과 신인왕을 동시에 차지한 토마스 뮐러(24)가 2골 1도움으로 펄펄 날았고, 도르트문트에서는 '폴란드산 폭격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25)가 신기에 가까운 골 감각으로 해트트릭(4골)을 작성했다.

이 때문에 최악의 컨디션으로 무득점에 그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니)와 1골로 체면을 차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플레이로 팬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틀 연속 프리메라리가 팀들을 무너뜨린 분데스리가 팀들의 저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문성 SBS 축구해설위원은 "철저한 상대팀 분석의 결과"라고 손꼽았다. 박 위원은 "독일 축구는 기본기에 강한 축구"라며 "예전에는 독일 축구가 빠른 측면 돌파에 이은 골 해결이 기본 전술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바르셀로나식의 정밀한 패스와 강한 압박까지 더해져 위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효과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실례로 뮌헨은 메시가 볼을 잡으면 2~3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압박해 패스의 길을 차단, 바르셀로나 축구의 핵심인 현란한 패스와 볼 점유율을 떨어뜨렸다. 이날 도르트문트 역시 호날두의 돌파를 협력수비로 막은 뒤 재빠른 역습으로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다.

박 위원은 "뮌헨이 높이를 활용해 바르셀로나를 잡았다면 도르트문트는 공격 템포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했다"며 "빠른 공수 전환과 기회가 왔을 때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에서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한 수 앞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많은 경기 일정 때문에 지친 측면도 악재로 작용한 것 같다"며 "결국 집중력 싸움에서 독일 팀들에 밀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뮌 헨

정밀한 패스·강한 압박
바르샤보다 더 바르샤처럼

도르트문트

수비 조직력·빠른 역습
레알보다 더 레알처럼

2002년 이후 유소년 축구에 엄청난 투자로 유망주 발굴 성과
스페인 못지않는 기술·창의성+강한 체력으로 스페인 넘어서

로 번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4골 '원맨쇼'

챔스 4강전 … 도르트문트, 레알마드리드 4-1 완파

독일 분데스리가가 세계 축구를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이틀 연속 충격에 빠트렸다.

도르트문트(독일)는 25일(한국시간) 독일 시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4-1로 완파했다.

폴란드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25)가 무려 네 골을 몰아치며 쾌승의 선봉에 섰다. 포르투갈 스타 골잡이 크라스티아누 호날두(28·레알 마드리드)는 한 골을 터뜨렸으나 레반도프스키의 맹활약과 패배탓에 존재감을 잃었다. 프리메라리가는 양강으로 꼽히는 클럽들이 이틀 연속 분데스리가 클럽에 굴욕적 패배를 당해 충격에 빠졌다. 바르셀로나는 전날 열린 4강 1차전에서 독일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에 0-4로 완패했다.

도르트문트는 강력한 수비, 빠른 역습, 호쾌한 결정력을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혔다. 첫 골은 경기가 시작한 지 7분 만에 도르트문트가 터뜨렸다. 마리오 괴체가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을 돌파해 올린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달려들며 발을 뻗어 골문에 밀어 넣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후 심하게 흔들렸으나 호날두가 만회골을 터뜨려 기력을 되찾았다. 호날두는 0-1로 뒤진 전반 42분 곤살로 이과인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보낸 패스를 가볍게 때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도르트문트 수비수 마츠 훔멜스가 위험지역에서 실책으로 볼을 놓친 데 따른 결과였다. 심각한 실책 탓에 흐름이 끊겨 잠시 주춤한 도르트문트는 후반 들어 무서운 반격을 시작했다.

레반도프스키는 후반 4분 골 지역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히 뚫고 결승골을 터뜨렸다.

마르코 로이스의 스루패스와 레반도프스키의 돌파가 이룬 타이밍이 워낙 절묘해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은 순간적으로 허수아비가 됐다. 레반도프스키는 후반 9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수비수 두 명을 따돌리고 강슛으로 또 골망을 흔들어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도르트문트의 골 퍼레이드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으로 뒤진 후반 20분 사비 알론소가 페널티지역에서 로이스를 떼밀어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레반도프스키는 키커로 나서 골망 정중앙에 꽂히는 대포알 슈팅으로 자신의 네 번째 득점을 올렸다. 도르트문트는 4-1로 달아났다.

결승에 진출하는 클럽은 4강 1, 2차전 스코어의 합계로 결정된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세의 수위를 높였으나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 레반도프스키는 10골을 쌓아 리오넬 메시(8골·바르셀로나), 토마스 뮐러(7골·바이에른 뮌헨)를 따돌리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득점 2위에 올랐다. 선두 호날두(12골)를 두 골차로 바짝 추격했다. /연합뉴스

"4골이요"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25일(한국시간) 독일 시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후반 20분 레알 마드리드 골문에 4번째 골을 넣은 후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 FC 안방 첫 승 도전

28일 1위 경찰축구단과 대결

광주 FC가 안방에서 첫 승전보를 올린다.

광주 FC가 28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경찰축구단을 상대로 2013 K리그 챌린지 6라운드를 치른다.

지난 고양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터진 김수범의 극적인 동점골로 안방 연패에서는 벗어났다.

상대는 K리그 챌린지 1위를 달리고 있는 경찰(3승1무·승점 10)인 만큼 단단히 준비를 했다.

고양전을 통해 부상 탈출을 알린 미드필더 김은선과 여름이 허리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김준엽과 센스있는 플레이의 김호남이 공격에서 콤비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무디어진 루시오의 창은 임선영, 안동혁, 박정민이 보완한다. 루시오는 최근 상대의 집중 마크 속에 체력이 저하되면서 움직임이 더뎌졌다.

광주의 공략지점은 중앙이다. 강한 압박과 빠르고 과감하고 빠른 슈팅으로 경찰의 약점인 중앙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위기 전환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광주는 25일 한응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을 초빙해 '나는 진정한 프로선수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갖는 등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했다.

슈팅과 골 결정력이 좋은 양동현, 정조국이 경계 대상. 광주는 두 선수의 움직임을 막고 빠른 공격전환을 위해 맞춤형 전술을 연습했다.

무엇보다 염기훈의 봉쇄가 승리의 관건이다. 광주는 그동안 필드골보다 세트피스 및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골을 허용해왔다.

염기훈의 칼날같은 왼발 킥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양상민-오범석이 포진한 '국가대표급' 좌-우 윙백 콤비는 공격의 파괴력을 더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안방 첫 승의 키플레이어는 베스트 11에 빛나는 김수범이다. 반대편의 박희성과 콤비를 이뤄 오른쪽 터치라인을 책임지는 김수범은 왕성한 체력과 스피드 그리고 발재간까지 갖춘 든든한 윙백이다.

좁은 공간에서 볼을 살려내거나 상대 측면 깊숙한 곳에서 반 박자 빠른 크로스를 올리는 등 팀의 공격력 극대화의 필수 자원이기도 하다.

고양과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며 공격에도 가담, 자신의 프로데뷔 골이자 천금같은 동점골을 기록했다. 수비에서는 물론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등 김수범의 역할이 막중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QPR, 지면 강등

28일 레딩과 35라운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퀸스파크 레인저스(이하 QPR)에서 뛰는 박지성(32)과 윤석영(23)이 강등의 운명을 눈앞에 뒀다.

QPR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레딩의 마제스키 스타디움에서 레딩과 2012-2013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QPR은 4승12무18패, 승점 24로 강등권인 19위를 달리고 있다. 4경기를 남겨 놓은 가운데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애스턴빌라(8승10무16패·승점 34)와는 승점 10차이다. 이 경기에서 지면 QPR은 그대로 강등을 확정한다. /연합뉴스